

월간 **내일**

HIGH UP!
꿈을 향해 더 높이

미 래 의 경 쟁 력 직업 능력 개발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고교 위탁 교육을 받은
이서형, 정우담 님의
테마 인터뷰는 18p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 캐치업

직업능력개발

내일로 붙업

한계를 허무는 젊고 역동적인 일터

날마다 레벨업

드라마 <유니콘> 속
노동이야기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위해

날마다 특별할 것이 없고 평범한 하루입니다.
열심히 사는 듯하지만
허투루 보내기도 했을 것이고,
재미를 찾아 고군분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무심코 지나가는 날들이지만
우리에게겐 더없이 소중한 날이기도 합니다.

10월에는 서투르고 엉성하지만
즐거운 일들에 도전해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이 일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특별하고, 멋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10월엔 멋진 날들이 계속 되기를
고용노동부가 희망합니다.



월간 내일

10월의 멋진 날을
응원합니다

Contents



Chapter 1 트렌드 캐치업!

- 08 **톡톡톡**
직업능력 업그레이드 받으셨나요?
- 10 **트렌드 인사이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 16 **알아두자고용**
글로벌 직업능력개발훈련 동향
- 18 **내일이 만난 사람**
‘스무 살에 내딛은 사회의 첫걸음’
취업에 날개를 달다!
- 이서령, 정우담 님
- 24 **정책모음.ZIP**
나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을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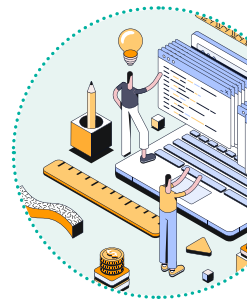
Chapter 2 내일로 붙임!

- 34 뉴 스타트**
희망 가득한 인생 2막
- 성남시청 방기관 주무관
- 38 청년꿈터**
취업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임용묵 씨
- 42 굿&굿 오피스**
한계를 허무는 젊고 역동적인 일터
- 디오프연구소
- 46 더불어 세상**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온 10년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
- 베어베터
- 50 고용노동 뉴스**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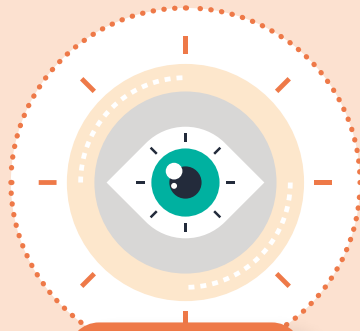
- 62 미디어 속 노동쟁기**
드라마 <유니콘>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 66 JOB툰**
난나의 취준일기
- 68 디지털휴먼**
문해력을 이해하는 용어
- 70 주말에 뭐 할래?**
가을맞이 문화 큐레이션
- 74 직장인생활백서**
파워포인트에 힘 싣는
무료 폰트들
- 76 채널 MOEL**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소개
- 78 그린 리추얼**
양치컵 사용하기 챌린지
- 80 내일스타그램**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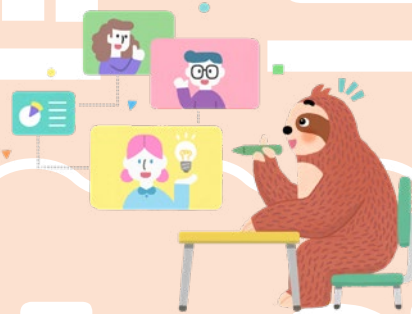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69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Chapter 1

트렌드



캐치업



우리 함께 세상 읽기

자기개발에 힘쓰는 대한민국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즉,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직장인들의 자기개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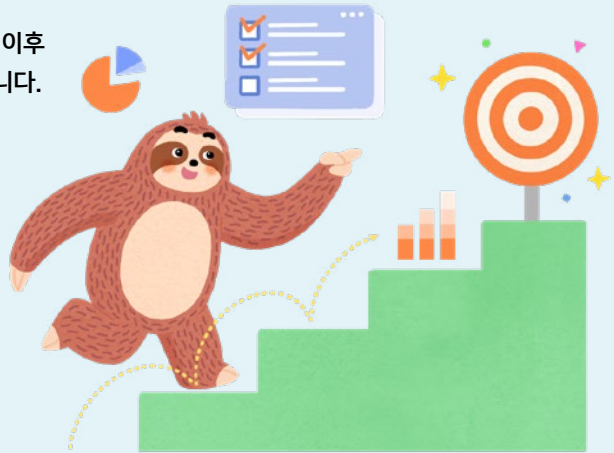
업무역량 강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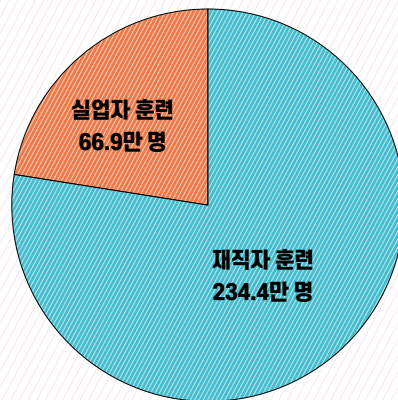
직업능력 업그레이드 받으셨나요?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도입된 이후
직업훈련에 대한 교육은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재직자 훈련 / 실업자 훈련

(2021년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현황

(2020년 기준, *2021년 통계는 2022년 말 발표 예정)

재직자훈련

2019년 3,970,953명

2020년 2,057,338명

실업자훈련

2019년 242,84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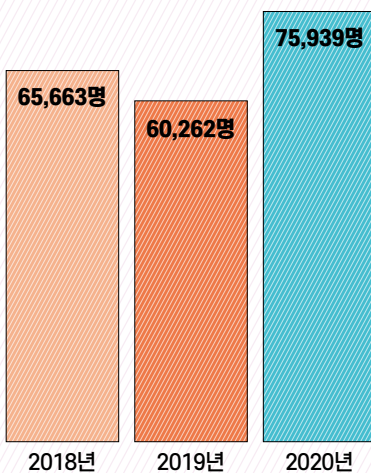
2020년 431,452명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2020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국가기간-전력산업직종훈련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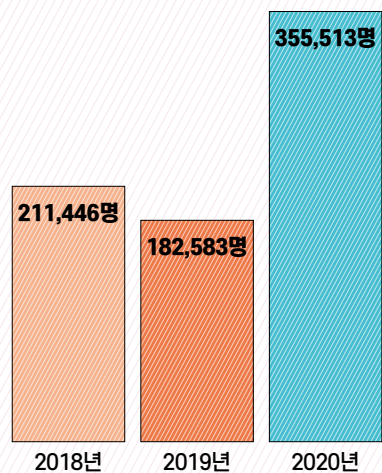
(2020년 기준, *2021년 통계는 2022년 말 발표 예정)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2020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 훈련실시 인원

(2020년 기준, *2021년 통계는 2022년 말 발표 예정)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2020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난 9월은 직업능력의 달이었습니다. 직업능력의 달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199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기개발 직업능력개발

자기개발이 곧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 하니 어렵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해보면 결국 '자기개발'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즉 자기개발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 업무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직업능력개발, 꼭 해야 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물론, 미래 일자리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평생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직업훈련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 미래선도, 숙련기술인 양성, 기업맞춤형 훈련 등에 전년 대비 11% 증액한 2조 9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어?

국가에서 아무리 장려한다고 해도 진입장벽이 높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쉬운데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여진다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들도 마련되어 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만 있다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기능 등을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 사립 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직업훈련 시 장기 저리의 생계비 대부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에 전념하고, 추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산재보험 적용 중인 특수형태근로자 등 가구의 연 소득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고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K-DIGITAL PLATFORM



직업능력개발에 힘쓰는 회사 지원도 짹!

직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아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지만 자기개발을 위해 자리를 비우면 고용주 입장에서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훈련비용도 부담이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직원들 직업능력개발에 힘쓰는 기업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중소기업 훈련지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경험·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지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 중소기업에 우수 기술·기능 인력인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활용, 숙련기술 등 전수 지원

K-Digital Platform

지역 내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을 중소기업 재직자, 구직 청년, 영세자영업자 등과 공유하고, 지역 내 주력산업 등과 연계한 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융합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디지털 훈련 시설, 장비 구축비 등으로 1년차에 10억 원, 2~5년차는 5억 원씩, 5년간 총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직업능력 훈련이 활성화되려면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만큼 직업능력개발 역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등이 모든 일터에 정착되어 직업 능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풍토가 확립되어 국민들의 희망도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이는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 총괄 하에 산업계 주도로 실력중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어요.

훈련기관, 자격시험기관, 기업체 등에서 활용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2022년 2월 기준 24개 분야 1,064개 NCS를 개발했고, 매년 현장 수용을 반영해 10여 개의 NCS를 개발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기자동차, 리튬이온전지제조 등 11개 분야를 개발하고, 로봇하드웨어설계, 인공지능서비스기획 등 11개 분야에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국가직무
능력표준
NCS



글로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동향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새로운 직업능력 습득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교육도 점점 디지털화되면서 글로벌 여러 국가들이 온라인 훈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독일

- 인구구조 변화, 훈련생 감소, 디지털화에 따른 숙련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 직업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국가 계속교육전략 수립 추진
- 중소기업 종사자 디지털 숙련 향상을 위해 기업 공동훈련 훈련센터 확대
- 훈련 지식 공유 플랫폼을 통해 훈련 프로그램 개발 성과 및 노하우 공유



미국

- 민간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훈련지원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개인의 노동시장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 전문기술 개발에 따른 개인별 성과와 능력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AI 인력 강화를 위한 법안 제안
 - AI 개발 프로세스 전체를 아우르는 인력전략을 마련, 4년제 대학을 통한 AI 인재 양성 규모 확대, AI 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확대





일본

- 제11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평생 능력개발 지원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 활용 인재 육성 강화
- 제조분야 훈련의 AR, VR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 노동자 IT기술력 향상 교육 진행
- 온라인 훈련 및 온라인·대면 혼합훈련 활성화



호주

- 4차 산업혁명 등 고용환경 급변으로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신규 직업 탐색 지원 서비스 'Skill Match' 오픈
- 코로나19로 인해 수요 증대 업종에 한해 6개월 이하 단기 훈련과정 제공
- 중소기업의 경우 견습과 훈련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9개월 동안 임금 50% 수준의 코로나 특별 보조금으로 지원
- 신성장 산업 실습 및 도제제도 대폭 확대
- 교수자 온라인 교육훈련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IT 훈련과 지원 제공



중국·영국·프랑스

- 인공지능(AI)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 기반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이스라엘

- ICT 기술교육 및 재교육을 위한 코딩 부트캠프 운영을 통해 하이테크 인력 확충 노력



'스무 살에 내딛은 사회의 첫걸음' 고교 위탁, 취업에 날개를 달다!

이서령·정우담 님

직업훈련에서 배웠던
이론과 기술이
매우 유용했습니다.

+

이서령 님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졸업 후 일반계 고교에서 꿈을 위해 취업을 고민하는 고등학생이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3 학생의 사회 진출을 위한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일반고 위탁 교육과정을 마련해 사회가 요구하는 직무기술중심의 취업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의 역량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교육원에서 고교 위탁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연착륙한 두 명의 스무 살 청년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직업훈련 지도를 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요.

+

정우담 님



해군 함정의 핏줄, 전기부사관을 꿈꾸며

이서령 님

Q _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세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때 고교 위탁교육으로 전기과를 수료했고, 졸업 후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의 기술행정학교에 소속돼 전기부사관 교육을 받으며 복무 중인 이서령 하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Q _ 경상남도 진해에서 경기도 시를 한국직업능력교육원까지 고교 위탁 교육을 받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진해가 고향인 만큼 어릴적부터 해군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학교의 행사가 있으면 홍보 교육도 많이 오셨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군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멋있고 자신의 직업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는 모습에 반해 해군 부사관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고교 위탁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저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군 군함에서 전기는 ‘함정의 핏줄’이라는 말을 듣고 목표로 했던 해군에 전기부사관이 되기 위해 전기과로 지원했습니다. 제가 먼저 온라인에서 고교 위탁 교육을 찾았고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 진로를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Q _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물리적으로나 학업적으로 어려움은 없었나요?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멀리 떠나는 것도 좋아하는 성격이라 힘들거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전기과 친구들이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그리고 문과였던 저에게는 전기과목이 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직업능력교육원에서 실습을 병행하며 공부하게 되었을 때, 이론으로는 어려



한국직업능력교육원에서
실습을 병행하며 공부하게 되었고,
이론으로 공부했을 때
어려웠던 것들이 실습으로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웠던 것들이 실습으로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배워
만든 전기도면과 전기패널을 스스로 만들게 도와준 담임 선
생님의 도움이 무척 컸습니다.

Q _ 담임 선생님이 이서령 씨에게 무척 특별했다고 들었어요.

우연히 담임 선생님 또한 해군 전기병 출신으로 소말리아 파
병까지 다녀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 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때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담임 선생님의 지도 아래 한국직업능력교육원
전기과 교육을 받으며 전기기능사와 승강기기능사, PLC제
어사까지 3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Q _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사실 힘든 점이 많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강기 기능사 필
기에 합격하고 실기를 봤는데, 작은 실수로 인해 불합격돼
많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담임 선생님
이 많은 조언을 주셨고 저에게 큰 힘이 되어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격증 취득에도 성공했습니다.

Q _ 졸업 후 취업하게 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텐데요.

전기과를 수료한 이후 제가 목표했던 해군 부사관에 지원
했고 지원기간 중 필기와 면접시험 대비를 준비했습니다.
이때는 사실 많이 불안했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다시 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필기가 조금 어
려웠지만 면접은 한국직업능력교육원에서 취득한 자격증
가점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해군교육
사령부 부사관 교육대대에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11주 동
안 거쳤습니다. 지금은堂堂하고 맛있는 해군 전기부사관
에 임관해 현재 기술행정학교 전기학과에서 전기이론 및
함정의 전기장비에 대한 운용과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Q _ 한국직업능력교육원에서 배운 것들이 취업 후 해군에 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일 하며 생긴 새로운 목표 는 무엇인가요?

아직은 군함을 타보지 못했지만, 해군 교육사 기술행정학
교에서 교관님들에게 전문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직업훈
련에서 배웠던 이론과 기술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
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격
증 취득 후 전기도면을 보는 눈이 넓어졌고 특히 기술행정
학교에서 교관님들에게 배우는 해군함정의 장비 도면을 파
악해 고장개소를 더욱 쉽게 식별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들
었습니다. 남들보다 제가 자격증을 더 많이 소지하고 있을
때 자신이 더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아직 교육 기간이 남았
지만 해군 전기 부사관으로서 좋은 성적으로 수료해 후배
를 가르치는 해군 전기 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Q _ 고등학생 후배들을 위해 이서령 씨가 하고 싶은 이야 기가 있나요?

저는 요즘 대학에 가는 것이 예전만큼 큰 의미가 있진 않다
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목표가 뚜렷해서 그럴 수도 있겠
지만, 혹시 대학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이 어
떤 것인지 모르겠고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위탁 교육에
서 다양한 분야를 배우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회의 첫발을 돕는 고교 위탁 교육

정우담 님

Q _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군포에 소재한 수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우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직업능력교육원에서 일반고 위탁교육 전기기능사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시흥시에 자리한 아성이엠에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_ 고등학교 3학년 생활 대신 한국직업능력교육원을 선택한 계기가 궁금해요.

우선 최대한 빠르게 취업하고 싶었어요. 공부에 크게 관심이 있기보단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예전부터 기계나 전기 쪽에 관심이 많기도 했어요. 관련된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쪽으로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해주는 설명을 들었고 관심이 생겨서 인터넷에 검색한 후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게시판에도 많이 붙여놔던 것이 기억나요.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 더욱 관심이 갔어요. 시흥에 있는 한국직업능력교육원이 고교생을 받고 전기과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선택하게 됐습니다.

Q _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한국직업능력교육원에서 생활은 어땠나요?

쉽진 않았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2021년 1월부터 한국직업능력교육원 시흥점으로 등교했어요. 학교와 다른 듯했지만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 교과 과정 대신 전기과에서 친구들과 전기와 관련된 공부, 실습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서 한국직업능력교육원으로 등교하고 5층의 전기

실습실에서 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며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30여 명의 친구와 한 반에서 1년간 함께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전국에서 온 친구들이 모인 만큼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같은 목표로 모여서 그런지 더욱 친해질 수 있었어요.

Q _ 학교와는 아예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생소하면서도 신선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적성에 맞아서 그런지 재미있었어요. 도면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선을 깔고 결선하는 것들을 배웠죠. 전기 기능사 자격증 위주로 필기와 실기 공부를 했습니다. 전기 이론을 배우면서 관련분야인 승강기에 대해 배워서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또 전기배선 공사를 배워 제어판에 전기배선공사를 하고 동작까지 시킬 수 있게 됐어요. 전기자동제어시스템(PLC) 제어사까지 총 3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보통 1년간 2~4개 정도의 자격증을 따는데 선생님께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자격증 지도를 해주셔서 세 개를 딸 수 있었어요.

Q _ 선생님은 고등학교의 담임 선생님 같은 방식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반에 한 명의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담임 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도맡아 진행하세요. 선생님께서 자료를 많이 주시며 도우셨고 친구들과 수업 끝나고 남아서 같이 공부해서 크게 어려웠던 것은 없었어요. 태어나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게 처음이었지만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죠.

Q _ 그렇게 1년간 공부하고 자격증을 딴 뒤, 취업한 과정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따라 취업이 편하기 때문에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전제하에 진로 선생님께서 자기 소개서 작성 등을 도와주시며 취업 준비를 함께해주셨어요. 자소서를 함께 쓰면서 더 배우고 싶고 진학에 뜻이 있는 친구는 공대 쪽으로 빠지고 취업에 뜻이 있는 저 같은 학생들은 함께 구인 공고를 찾아봐주시기도 했고요. 2022년 1월 학업이



보통 1년간 2~4개 정도의 자격증을 따는데 선생님께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자격증 지도를 해주셔서 세 개를 딸 수 있었어요.

끝난 뒤 몇 번의 면접을 봤지만, 결과가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전기과 친구가 지금의 회사에 먼저 취업하고 저에게 추천해줬어요. 회사가 마음에 들었고 저도 그 친구와 같이 일하고 싶어서 진로 선생님께 “여기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이후 면접 기회를 얻었어요. 결국 합격했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Q _ 목표로 하던 취업을 해보니 어떤지 궁금해요. 우담 씨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가요?

무척 만족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에 나와 배우게 된 것이 많이 다르고 어렵지만, 학교에서 배운 기초가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라 초반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선배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매일 보람 있게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다른 지역, 다른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한 교실에 모여 생소한 과목을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반고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느끼거나 특별한 교육 과정이나 기술을 배워서 빨리 취업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꼭 선택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을 확인하세요!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전직 또는 취직을 준비하는 이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변화의 흐름에 소외되지 않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지킬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 양성과 향상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을 지원하며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계좌 발급일부터 5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①,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 원^②이 지급됩니다.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장년층 참여자는 50~80%, 근로장려금(ETC) 수급자, 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② 단위기간(1개월) 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도 있습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은 산업별 협·단체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을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산업별 협·단체가 주도하여 훈련의 전 과정에 산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 mismatches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및 재직자로 채용 예정자 훈련은 70% 이상, 재직자 훈련은 50% 이상 청년층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동훈련센터^①에 대해 훈련비(실비)를 지원하며 인프라지원금도 제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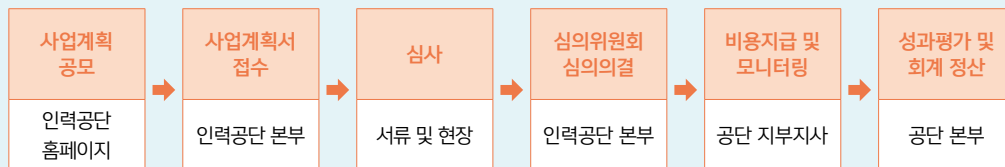
<협·단체> 인건비(5천만 원), 운영비(8천만 원), 프로그램개발비(4천만 원)

<공동훈련센터> 인건비(1억 원), 운영비(6천만 원), 시설장비비(3억 7천만 원)

<훈련생> 훈련수당(월 20만 원,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에 지급함)

①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컨소시엄 훈련 참여 기업

사업절차



국가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세요

국가인적개발 컨소시엄 사업(CHAMP: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은 공동훈련센터와 대·중소기업 간 공동훈련 협약을 맺고 구축된 훈련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협약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관을 통해 무료 연수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일체의 비용부담 없이 수강 신청만으로 직무능력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별 지원제도인 셈인데요. 공동훈련센터·훈련생,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시설·장비비(15억 원), 프로그램 개발비(1억 원), 운영비(4억 원), 훈련비(실비)를 지급합니다. 기업수요맞춤형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운영비 1.2억 원 시설·장비비 15억 원 및 프로그램 개발비 10억 원 이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훈련생은 훈련수당으로 1개월 120시간 총족 시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유형	역할 및 기능	협약기업
대중소상생형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중소기업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전략분야형	특정 산업이나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해당 산업 및 직종의 기업
기업수요맞춤형	협약기업의 직무분석을 통해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 기존 대중소상생 및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 참여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산업 및 직종의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 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입니다. 고용보험가입 사업주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수준
훈련비	기업 규모 제한 없이 4시간 이상 훈련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60%(원격훈련 80%) 1,000인 이상: 40% *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유급휴가 훈련인건비	-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20일 이상 훈련 - 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180시간 이상 훈련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 대체인력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1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만 4천 원 한도 (1개월 33만 원 한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활용하세요

지역·산업계 중심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주도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인력수요 조사 → 공동훈련센터 → 채용 등에 이르는 지역별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정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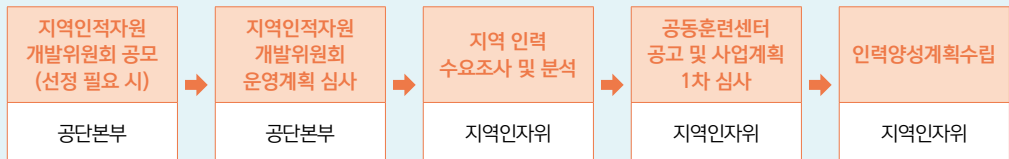
참여 가능 기관으로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 사업주단체 및 연합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훈련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비영리기관)이어야 하며, 파트너훈련센터의 경우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사업주단체 및 연합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훈련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입니다.

지원내용

항목			공동훈련센터
인프라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비율	80%(인건비), 100%(운영비) 범위 내
		지원한도액	연간 4억 원(운영비 중 인건비 최대 2억 원)
	시설 · 장비비	지원비율	80% 범위 내
		지원한도액	연간 15억 원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지원비율	100% 범위 내
		지원한도액	연간 1억 원
훈련비용(훈련비+숙식비 등)		실 지원수준	실비(심사 단가)

* 세부내용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참조

지원절차



중소기업 훈련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중소기업 훈련 지원 사업의 목적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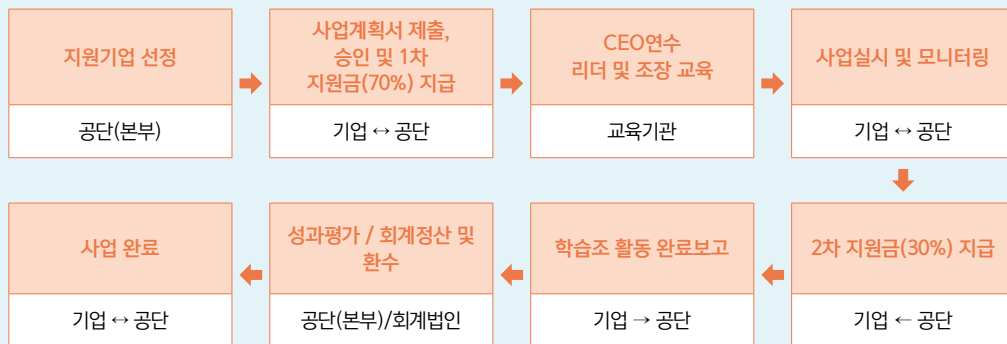
학습조직화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일학습병행, 사업주 훈련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입니다. 지원요건은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으로 지원유형^②에 따라 비용의 70%와 30%를 사업일정에 따라 각각 나눠서 지급됩니다. 반면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제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활용, 기술진단 후 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 전수 지원 등이 지원됩니다. 두 과정은 사업 추진체계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경험·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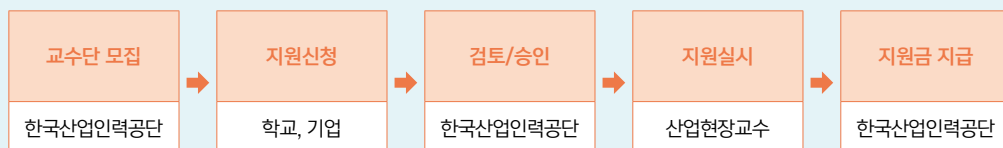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중소기업에 우수 기술·기능 인력인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활용, 숙련기술 등 전수 지원

② 학습조직운영, 우수사례활동, 외부전문가, 학습인프라지원

학습조직화지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훈련비 전액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제외 대상은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소득)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과 만 75세 이상자입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은 월 최대 11만 6천 원^①이며,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훈련장려금은 '22.8.1.~12.31. 월 최대 20만 원으로 한시 상향 지급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은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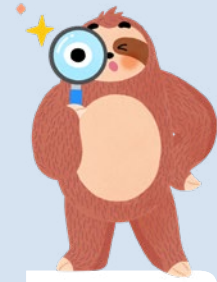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에 재학중인 고3 학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부여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일반고 특화심사를 거쳐 선정된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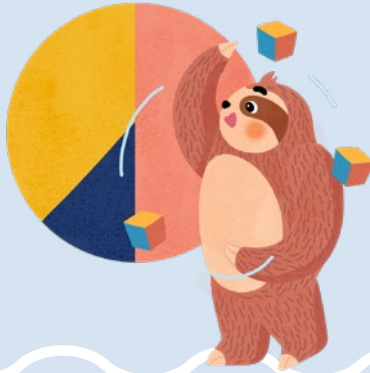


Chapter 2



내 일로

복



업

우리 함께 희망찬 내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천천히 자신의 길을 갈고 닦는 게 중요해요.
어떤 방식이든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깜깜한 터널 같은 곳에 빛이 비치면서
나만의 길이 보인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있듯
스스로를 갈고 닦아
멋지게 기회를 잡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선물한 희망 가득한 인생 2막

성남시청 방기관 주무관

대기업 제조업체와 금융기관에서 27년간 몸담은 방기관 씨는
퇴직을 목전에 앞두고 재취업의 현실에 부딪혀 예상치 못한 좌절과 충격을 겪었습니다.
냉정한 구직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경험한 방기관 씨는 칼을 가는 심정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자기개발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인생이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회사가 5개월간의
퇴직 준비 기간을 줬을 때,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두 단계 정도 낮은 금융기관에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훌륭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장황한 탈락 문자를 받았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명예퇴직 후 잔인했던 현실의 벽

1989년 대우그룹에 입사한 방기관 씨는 7년 여간 당시 대우중공업에서 채권관리와 송무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영학을 전공했던 방기관 씨는 경력 개발을 위해 고민 끝에 금융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은 두산캐피탈, 당시엔 연합기계할부금융이었던 방기관 씨는 두 번째 회사에서 채권관리, 영업 관리, 고객지원파트를 거쳐 광주, 대전, 경인, 서울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2015년 10월, 회사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되며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방기관 씨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직장생활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 살이라도 어린 지금 퇴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퇴직원을 신청했습니다. 그의 나이 52세였습니다. “제가 자리를 내려놓은 서울지점장은 소위 회사의 ‘꽃’인 자리였습니다. 그 정도면 명예퇴직해도 어디든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회사가 5개월간의 퇴직 준비 기간을 줬을 때, 다니던 회사보다 두 단계 정도 낮은 금융기관에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훌륭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장황한 탈락 문자를 받았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고민 끝에 자존심을 버리고 헤드헌터에게 말을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저를 더 절망으로 몰아넣었어요. ‘선생님은 구직 시장을 모릅니다. 임원 퇴직이 아닌 부사장 퇴직을 했을 뿐만 아니라 50세가 넘는 사람 서류를 내면 우리도 욕만 듣게 됩니다. 저에게 이력서를 주지 마시고 알아서 구직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더군요.”

벼랑 끝에서 손잡아준 국민내일배움카드

방기관 씨는 이 일이 있고 난 뒤 한동안 그의 말을 빌리자면 ‘언어터진 것 같은 기분’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쉽게만 느껴진 재취업과 만만하게 바라봤던 인생 2막이 결코

직업상담사 교육을 받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교육과정이 무척 충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양한 토래와 함께 교육받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알게 됐고,
이 교육을 통해 다음에는 나처럼
헤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단 희망이 생겼어요.

순탄치 않겠다는 직감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주위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
교육받아보는 것을 권유했고 그 말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으나, 당장 교육
받진 않았습니다.

“일단 카드는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거든
요. 어느 날 딱 한 군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저 같은 이력의 소유자가 보험영업
을 하면 전 직장 급여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입사를 권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퇴
직자들은 한 번쯤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그러고 나니 정말 현실이 보이더군요.”
비로소 방기관 씨는 HRD넷과 워크넷에 들어가 직업흥미검사를 비롯해 다양한 취업 정
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이 본인의 성향과 맞는
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HRD넷 직업훈련 포털에서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당장 내가 직업상담사가 될 거라는 생각도 못 했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취업
시킬 순 없지만, 이 교육을 받고 노력하다 보면 재취업에 성공하는 답을 얻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2016년 6월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듣게 됐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직업상담사 교육을 받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교육과정이 무척 충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 자격증을 따려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눌 수도 있었죠. 다양한 토래와 함께 교육받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
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알게 됐어요. 이 교육을 통해 다음에는 나처럼 헤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단 희망이 생겼어요.”

교육 2개월 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방기관 씨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강사가 “전
직 지원이 더 좋을 수 있으니 강의를 추가로 듣는 것이 좋다”고 했던 조언을 잊지 않고
합격 후 전직 지원 전문가 과정까지 받게 됩니다. 총 340시간의 과정을 받으며 그는 누
군가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과정이 끝나가던 시점, 방기관 씨에게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광명시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무상담사를 뽑더군요. 서민금융이나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채를 조정해주고 상담해주며 나아가 취업까지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뽑는 자리였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적격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전직
지원 전문가 과정 강사님 중 한 분이 저의 성향을 고려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고
려해보라고 하셨던 것도 떠오르더라고요. 이 자리가 제자리란 확신이 들었고 역시나 합
격했어요.”

그렇게 28개월간 광명시청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방기관 씨는 2020년 초 성남시
청에서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보게 됩니다. 광명시청에서 경





력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 관내 대부업체를 총괄하는 자리에 딱 맞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방기관 씨는 서류 심사에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가 발생했죠.

“면접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심해지자 면접이 연기됐어요.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한 달 가까이 연기되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니 어찌겠어요. 2020년 4월 최종 면접을 보고 5월부터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3년 차가 됐네요. 회사 생활할 때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 영업, 채권관리 교육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강의 경험이 풍부해 올 11월에는 경기도 산하에 있는 대부업자들과 대부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준비 중입니다.”

방기관 씨는 인생 1막에서 쌓아온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탄탄한 징검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미래로 가득한 인생 2막을 누리고 있습니다. 방기관 씨는 이제 인생 3막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70세까지는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건강 관리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생 1막은 급여를 쫓았다면 2막은 재능기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 3막을 향해 갈 수 있었던 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도움이 컸습니다. 무척 알찬 교육을 듣게 해줬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강사님들이 있어서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취업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임용묵 씨



졸업을 앞두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대학 수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배운 임용묵 씨는 남들보다 더 빠르고 부지런히 준비해 중소기업 굿모닝아이텍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바심을 내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게으름 부리지 않고 한 계단씩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임용묵 씨는 성실한 청년이 가야 할 정석을 걷고 있는 듯했습니다.



졸업 준비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동시에

정보통신학과를 전공한 스물일곱살 임용묵 씨는 지난 2020년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4학년 1학기까지 전공과목을 대부분 이수한 뒤 본격적인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로 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 변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임용묵 씨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19로 비대면 학습이 늘어난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3~4월부터 학교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늘렸습니다. 전공과목 대부분을 미리 이수해놓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나, 주위 친구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

는 것이 유용하다는 조언을 해줬어요. 고민 끝에 교과 과정에서 부족했던 과목을 듣기로 했습니다.”

임용묵 씨는 방대한 학문을 얹고 넓게 훑는 정보통신학과 수업을 들으며 더 깊은 갈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졸업을 앞둔 4학년에도 갈증은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아는 것이 있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기분은 결국 ‘취업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로라는 것이 처음 전공을 선택하고 바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수업은 나와 맞고 어떤 수업은 나와 맞지 않는 것도요. 조금 더 깊게 파고들고 싶는데 수업이 없기도 했어요. 찾아보니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정보 시스템 진단 및 모의

IT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불안감이 수업을 들으며 점점
자신감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어디든 취직할 수 있겠단 자신감이요.
실제로 졸업을 앞두고 실전에
다가서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해킹 전문가 양성 과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궁금했던 분야였고, 졸업에 맞춰 이 교육도 학습
돼 있으면 취업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과정의 보충과 취업의 발판이 된 수업

결국 임용묵 씨는 4학년 2학기 수업과 국민내일배
움카드로 학원 교육을 병행하게 됩니다. 학원 교육
역시 1개월 뒤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되며 대학 과정과 학원 과정을 함께 듣는 데 큰 무리
는 없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개월간
수업을 들으며 임용묵 씨는 정보 시스템 진단 및 모
의 해킹 전문가 양성 과정을 깊이 마스터할 수 있었
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결국 쓰임이 있잖아요? IT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불안감이 수업을 들으며 점
점 자신감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어디든 취직

할 수 있겠단 자신감이요. 취직이 되진 않았지만, 보
안 수업도 IT 인프라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졸업을 앞두고 실전에 다가서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학원에는 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담임 선생님과 취업
을 담당하는 취업 선생님이 따로 계셨고, 한 반에는
30여 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5개월의 과정
대부분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됐지만 마치 중간고
사, 기말고사처럼 세미 프로젝트, 파이널 프로젝트
가 있어 주기적으로 팀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
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열심히 공부하
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렇게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교육 과정
을 이수한 임용묵 씨는 2021년 2월 졸업을 앞두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돌입합니다. 교육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취업 담당 선생님께서 임용묵 씨의 이력서
를 검토하고 자소서 쓰는 법을 도왔습니다. 모의 면



접 수업도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곳에 자리가 났으니 넣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식으로 학생들의 취업 전반에 큰 도움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비슷한 제안을 해주셨고요. 사실 지금 회사는 제가 온라인에서 찾아서 이력서를 넣었어요. 지원한 뒤에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잘했다며 조금 더 준비를 하면 면접도 잘 될 것 같다고 조언해주셨어요. 무척 든든했죠.”

회사의 에이스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

임용묵 씨는 지금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IT 중소기업 굿모닝아이텍의 주임으로 일하며 백업 솔루션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용묵 씨가 몸담은 회사는 마침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교육을 수료한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다시 말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이수해 졸업과 취업 사이의 공백을 없애고 취업 후 실

무자로서 연착륙할 수 있는 신입직원을 주로 채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임용묵 씨는 신입사원에게 업무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력직원으로 성장했습니다.

30세가 되기 전, 임용묵 씨는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0여 년간 만난 여자친구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저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선 누군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찾아올 수 있을 만큼 회사의 에이스로 성장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IT업계에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선배님들이 모르는 것을 잘 알려주시고 먼저 궁금한 것이 없는지 물어봐 주시는 것이 참 든든하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일하면서 ‘저 역시 든든한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팀에 들어오는 신입사원에게 똑같이 하려고 해요.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 데는 저의 노력도 있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없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Tip.

임용묵 님이 졸업을 앞둔 취준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어디를 가든 자신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어디서든 기회가 찾아와요. 저 역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저녁엔 꾸준히 공부했어요. IT 업계는 무궁무진하고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급하게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친구들이 취업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몰아세운 부분이 없지 않아요. 지나고 보니 그렇게 다급하게 굴어도 해결될 건 없었거든요. 힘들겠지만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먹고 천천히 자신을 갈고 닦으세요.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길이 보일 거예요.

한계를 허무는 젊고 역동적인 일터

디오에프연구소



덴탈 스캔 전문기업 디오에프연구소는 자체 기술력만으로
치과 치료 디지털화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의 치의술이 세계 최고인 것을 감안한다면 디오에프연구소
역시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일하는
문화와 워라밸을 오랫동안 추구해온 디오에프연구소의 젊고
혁신적인 인재를 만나보니, 회사의 성장이 자연스레 이해되었습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즐겁게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경쟁력 있는 기술과 직원을 위한 가치

디오에프연구소는 자체 기술력으로 3D 덴탈 스캐너와 덴탈 밀링 머신을 개발하는 CAD/CAM 토탈 솔루션 기업입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디오에프연구소는 카메라가 움직이는 스캐너로 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등장해 현재까지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정밀도를 자랑하는 모델 스캐너 FREEDOM X5, 원스텝 밀링이 가능한 올인원 밀링머신 CRAFT 5X, 환자의 얼굴을 3D로 재현하는 페이스 스캐너 FEEDOM F 등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디오에프연구소는 3D 스캔 분야의 핵심 기술 특허 12건을 등록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가공기, 치과 플랫폼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전 세계 고객에게 덴탈 CAD/CAM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R&D에 투자하여 신

제품 개발 등 끊임없는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전세계 덴탈 시장을 주도하는 최상급 기업답게 기업 문화 및 근무환경에 대한 혁신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평적으로 일하는 문화와 워라벨을 지속해서 추구하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1년 하반기 우수 기업 연구소로 선정되기도 했죠. 디오에프연구소의 창립부터 13년간 성장을 지켜본 박소정 팀장은 회사가 청년들이 즐겁게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자기 주도적인 마인드로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직원을 지향합니다.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업무에 몰입하고 그 몰입을 통하여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회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수평적으로 일하는 문화와
위라벨을 지속해서 추구하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일과 삶
을 조화시켜 좋은 에너지를 얻으며 지속할
수 있는 삶의 구조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은 서로 협력적인 관계

덕분에 디오프연구소에는 다양한 복지와
혁신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일과 가정
을 안정적으로 양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
록 각종 경조사 지원을 기본으로 주택자
금, 학자금, 의료비, 재해보조금 등의 지
원제도를 제공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직
원에겐 특별휴가와 함께 호텔 식사권을
선물하고 창립기념일에는 소정의 상품권
을 증정합니다.

“평균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다르게 디오프연구소
에는 결혼한 직원들이 많은 편인데, 이러
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도움된 부분도 있
다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이 100% 정규
직일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
한 직원을 위해 5년 주기로 리프레쉬 휴
가와 포상금을 지급해 재충전을 통해 사
기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디오프연구소는 또 연차 사용이 매우
자유로운 편입니다. 휴가원 제출기한이
없고 휴가원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결재가 완료됩니다. 누적된 피로를 해소
하기 위해 휴가를 떠나는 경우는 물론 사
유를 공개하기 애매한 경우까지 눈치 보
는 일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매년
연차 사용률이 99%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결혼하는 직원



들을 위해 디오에프연구소만의 특별한 복지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직전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식 전 2주간 재택근무를 시행한 것입니다.

“타사의 복지를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직원들의 니즈를 받아들일 수 있는 회사 분위기를 조성해왔습니다. 직원 스스로 책임감을 갖는 자율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유연 근무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연구 몰입을 위한 탄력 근로제, 원거리로 출퇴근하시는 분을 위한 시차 출퇴근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직군을 위한 간주 근로시간제,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등 자율적인 근무 형태로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유연근무제를 통해 등원과 하원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년 자체적으로 팀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와 매출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업적을 창출하는 인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등 모든 직원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 동기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덕분에 디오에프연구소의 46명 직원 중 청년 재직자는 32명이나 됩니다. 5년 이상 회사에 몸담은 직원은 13명으로 전체 직원의 30%에 육박합니다.

“디오에프연구소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축하고 노조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 극대화 경향과 근로자 이익 추구 경향이 충

돌할 때 근로자는 노조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회사에 전달하고 회사는 노조의 의견을 경청하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워라밸이 만드는 건강한 회사

여기서 멈추지 않고 디오에프연구소는 직원의 숨은 역량을 끌어올려 창의성, 집중력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게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혁신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곧 디오에프연구소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디오에프연구소만의 방식입니다.

“가족 친화 인증기업,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등 다양한 인증을 통해 직원들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디오에프연구소는 직원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서 잘 활용하고,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회사에 요청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전체 미팅을 통해 회사의 가치와 목표에 대해 함께 되새기며 연구성과, 영업성과, 경영성과 등 기타 사내의 여러 사항에 대해 소통하며 벽 없는 조직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오에프연구소 직원 모두가 수평적인 기업문화와 건강한 워라밸을 누리며 내일을 이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온 10년”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

베어베터

BEAR
WALKS
WITH
US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이 일한다는 것이 스스로에게는 자부심을,
가족에게는 안도와 행복을 그리고 이웃에게는 모두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알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년째 발달장애인들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베어베터를 찾았습니다.



발달장애인 사원 240여 명을
비롯해 그들의 가족까지
약 1,000명에게 안도감을 주는
회사를 꾸리는 것이
보람된 일입니다.

묵묵하고 든든한 곰이 지키는 회사

베어베터는 네이버 창업 멤버인 김정호 공동대표와 그와 함께 일하던 이진희 NHN 이사가 함께 꾸린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난 2012년 첫 샵을 뜬 뒤부터 기업에 명함·교육자료 등의 인쇄물, 조식·선물 용도의 제과, 근조 화환 등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또 사내 카페와 매점을 기업 간 거래로 위탁 운영합니다. 현재 베어베터에 속한 발달장애인 사원은 240여 명으로 임직원의 77%를 차지합니다.

베어베터의 발달장애인 사원은 상품을 포장하고, 꽃을 다듬고 쿠키를 만듭니다. 제품을 포장해 직접 배송하거나 사내 카페에서 음료를 만드는 일도 발달장애인의 몫입니다. 양질의 재료와 더불어 발달장애인들의 진심과 시간을 들여 기본에 충실하되 가치 있는 물건을 본인만의 속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수동에 자리한 베어베터 본사에는 ‘Bear makers the world better’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캐릭터 ‘베베’가 곳곳에 자리했습니다. 언뜻 무뚝뚝하고 고집스러우며 표정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곰이지만, 순수하고 우직한 발달장애인들의 특징을 곰에 담았습니다. 손과 눈이 빠르지는 않지만 익숙한 일은 성실하게 해내

는 발달장애인들처럼 말이죠. 이진희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 사원 240여 명을 비롯해 그들의 가족까지 약 1,000명에게 안도감을 주는 회사를 꾸리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연계고용 부담을 돕는 베어베터

첫해 7,000만 원으로 시작한 베어베터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 89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 5곳에 불과했던 고객사가 약 400곳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SK·CJ·네이버·카카오·IBM·대웅제약·로레알·KT·신한은행·카이스트·고려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과 기관이 베어베터와 손잡았습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사회공헌활동만으로 베어베터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베어베터가 다양한 기업과 협업하는 이유는 특별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한 공공기관·기업 등은 장애인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만일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기관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거래하면 거래 금액의 50%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의무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죠. 베어베터는 장애인 직접 고용이 힘든 회사와 거래해 고용 의무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과태료를 줄여 필요한 물품을 조달받고, 발달장애인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어베터는 이 제도를 활용해 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B2B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 강화에 힘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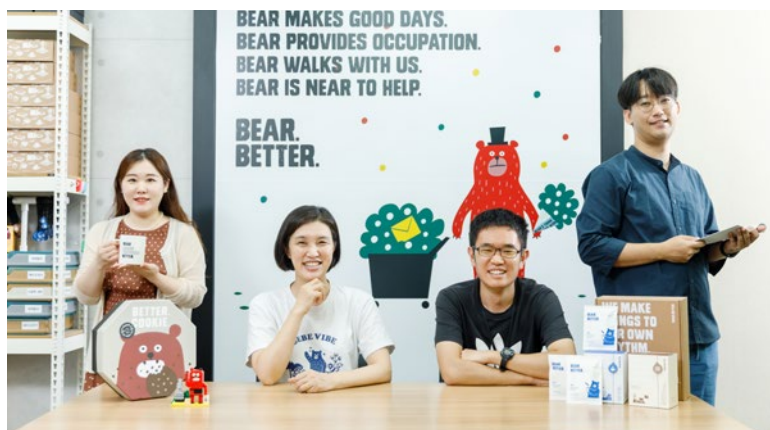
베어베터의 서비스 품질 강화는 모든 과정의 세분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명함을 만드는 과정도 기계에 종이를 넣는 일, 인쇄된 종이를 검사하는 일, 명함을 통에 넣는 일 등 순서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베어베터만의 방식입니다. 베어베터 교육팀의 임상빈 팀장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했습니다.

“10년째 베어베터에서 일하신 발달장애인 직원분이 그룹홈 생활을 하시는데, 최근 그룹홈 선생님들이 오셔서 대표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어요. 10년간 일하고 정기적인 월급을 받으며 5,000만 원을 모으셨대요. 그동안 아버님 생활하는 데도 도움을 주셨고요. 무척 뿌듯했어요. 베어베터는 채용 진행을 단편적으로 해선 안돼요. 우선 신입 직원이 오면 3주 정도 모든 팀을 경험해보게 하는 수습 기간을 거치고, 팀장들이 모여 직원 평가를 해요.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점수에 못 미친다고 해서 단순히 불합격이라고 보는 것도 위험해요. 가능성이나 태도, 업무 파악 능력 등을 입체적으로 판단해 입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베어베터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니다.

베어베터는 서울과 지방의 발달장애인 고용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사회

베어베터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니다. 서울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의 30% 정도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5%에 불과합니다. 베어베터는 서울과 지방의 발달장애인 고용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브라보비버입니다.

“브라보비버는 지분투자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라인플러스, 매일유업, 카카오프라이즈, 한국투자증권, KCENC, 카페노티드 등 수도권 10개 기업이 지분을 투자해 만들었습니다. 베어베터가 사업운영과 인사 관리를 책임지고,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며 제과와 드립백 커피 등을 생산해 지분투자 기업 등에 납품하는 방식이죠. 참여 기업은 지분율에 따라 장

애인 고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브라보비버 지분의 19%를 보유한 회사는 장애인 근로자 54명 가운데 10명을 직접 고용한 셈이죠. 게다가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은 두 배수로 계산하므로 20명을 고용한 것이 됩니다”

브라보비버는 최근 대구에 첫 샵을 오픈했습니다. 베어베터는 향후 10년 이내에 브라보비버 사업장을 서울 외의 225개 시군구 중에 100개소를 설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경우 최소 600개 기업이 지분투자에 참여하며, 전체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은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보비버 인천에 문구류, 경기북부에 과일청 등 다양한 지역에 다른 사업군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베어베터가 발달장애인 직원을 뽑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몇 가지 있

습니다. 첫째 혼자 출퇴근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대중교통을 혼자 이용하며 지켜야 하는 공중 예절을 습득하는 것을 포함해요. 혼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것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사회생활의 규칙에 익숙해지고 습득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회사 생활할 때 무척 중요한 밑바탕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업무 지시를 이해하는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해요. 유창하게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단순화된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이 일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해요. 이 세가지가 충족된다면 언제든 베어베터의 문을 두드리주시기를 바랍니다.”

MOEL News

1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후 처음으로 본부 정책 담당자와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및 부서장이 모이는 자리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을 격려하고,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키우고,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지난 5년간 감독관 정원을 약 2배 늘렸고,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지방관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전담 인력 및 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0년 82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OECD 평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 독일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자율과 책임, 노·사·정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여 5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10월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2021년 기준 현재 감독관 1인이 2,600여 개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조직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감독관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 별도 예산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교육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체험·실습형 위주의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본부와 지방관서 간 소통의 기회도 늘려갈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본부 1층에서 '올해의 감독관'('21년) 3인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 제막식도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매년 우수한 감독관을 '올해의 감독관'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만들어 게시함으로써 감독관들의 사기 진작과 우수 공적 확산에 힘쓸 계획입니다.

2

이정식 장관, 노사·전문가들과
이중구조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 9월 16일 노사단체, 노동분야 전문가들과 최근 노사관계 이슈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진단하고, 최근 이슈화된 노사관계 갈등의 저변에 자리 잡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를 논의하고,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노사관계 교섭과 갈등의 양상, 주요 사업장의 노사갈등과 직간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넓은 노동 규범과 관행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근로자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노동법 체계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일하는 방식,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노동법 체계를 다층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면 이중구조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노사에게는 사회 연대기금 조성, 임금교섭 연대 등의 사례를 지속 만들어가면서 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정부도 조선업 분야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현안부터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 9월 7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 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방향을 이해하도록 돕고, 근로시간 관련 유럽 주요국의 법·제도에 대해 청취하며 이들 기업이 국내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 장관은 기초연설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이 노사의 신뢰를 기초로 합리적인 인사노무 시스템을 갖추어 현장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 여성, 고령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며, 청년고용을 위한 정부의 민간협력 정책에 외투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은 기업의 경쟁력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이 실시 중인 근로시간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외투기업은 국내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라며 “외투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고용행정데이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 고용부가 보유 중인 고용행정데이터의 민간 개방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보험 DB는 연구가치가 큰 자료이나 현재는 일부 국책 연구원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된다면 연구가 활성화되고, 데이터기반의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가명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분석항목을 결합하면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져 개인정보나 경영, 영업정보 공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적인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고용정보 공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교육부, 복지부, 국세청 등 다양한 정보를 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데이터를 이용하는 장소가 2개의 데이터분석센터에 한정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향후 제공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 경우, 이용자가 신청하는 데이터가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인력과 시스템에 한계가 있어 인력의 규모와 역량, 전산 인프라 등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 9월 7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업인 (주)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 직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장관은 직원들과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잘 운용하여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인데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하여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하며,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사용자 부담금)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개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4월 14일 제도 시행 이후 주거래은행·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전산 구축 작업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적립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자산운용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됩니다.



6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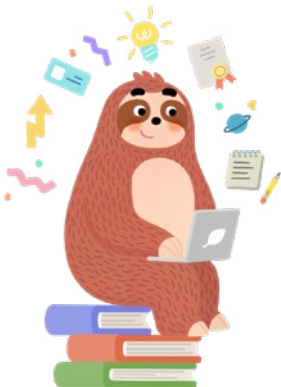


지난 9월 16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에 성공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습니다. 2022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은 연간 100만 명 이상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위상을 고려하여 총 3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그 중 '장관상' 수상작 6편에 대해서는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장관상' 수상작 중에는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한 훈련생

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처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시상식은 '직업능력의 달(9월)'에 맞춰 예년보다 이르게 개최되는데, 직업능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수상작의 사례는 웹툰, 유튜브 홍보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채널에 게재됩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한 도전에 나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는 국민이 ‘희망찬 내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나침반”이라면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시대’에 맞게 보다 많은 국민이 다양한 분야의 훈련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채용법』을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정채용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10월 5일까지 “공정채용법 온라인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공정’은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 실용, 공정, 상식) 중 하나로, 특히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채용절차의 공

화에 관한 법률』을 『(가칭)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해 채용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국민 설문조사’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채용 과정에서 겪었던 공정·불공정 채용 경험,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내용,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이 직접 입법자가 되어 『공정채용법』 조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공정채용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활용됩니다.



공정채용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고용노동부 누리집 배너 또는 인터넷 주소(<https://onsurvey.kr/Open.asp?EC=N5VG0BRU>)나 QR코드를 통해 컴퓨터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8

한국형 실업부조,
현장의 의견을 담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안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도화 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현장의견 등을 토대로 '21년 제도 시행 후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 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월 54만 9000원 이상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정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생계를 위한 취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

었기에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정지하는 방식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참여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소년부모 등 15~17세 구직자가 구직활동시 안정적으로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범위를 18~34세 이하에서 15~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현재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통상 1년, 추가 6개월 연장가능) 내에 취업한 경우에 만 재참여 제한기간을 단축(3년→1~2년)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기간에 취업한 자도 재참여 제한 기간을 동일하게 단축하며, 부정수급·오지급에 대한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을 반환금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애로를 겪는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합니다. 10월 21일까지 취업상담 커피트럭이 전국 24개 대학, 채용박람회, 여성일자리박람회 및 주요 마트, 공원, 도서관 등을 방문해 1만 4300명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함께 커피차 음원을 진행합니다. 또한 10월 31일까지 친구추천 챌린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많은 국민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리는 홍보도 진행됩니다.



삼성청년SW아카데미

대한민국 SW의 미래를 이끕니다

9기 모집 Coming soon!!

| 모집 요강

대 상 만 29세 이하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전공무관
현재 미취업자 대상

모집기간 2022년 10월 중
(SSAFY.com을 통해 공지 예정)

교육기간 2023년 1월 ~ 2023년 12월

교육장소 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부산)

지원내용

- ❖ 실전형 SW 교육 및 개인별 맞춤형 취업 컨설팅 제공
- ❖ 교육지원금 월 100만원 지급
- ❖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부산)캠퍼스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정부 훈련 장려금 추가 지급 가능
- ❖ 우수교육생 연수 기회부여, 교육중 삼성 SW테스트 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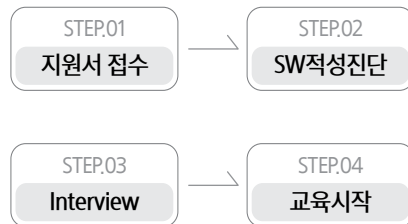
기 타

- ❖ 교육기간 중 통학 가능한 자(별도 숙소 제공 없음)
-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부산)캠퍼스 지원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K-digital Training 수강가능자 우대

| 교육 과정



| 모집 프로세스



* SW 적성진단은 지원서상 선택한 전공 기준으로
구분하여 실시
- SW 전공 : 기초 코딩 테스트
(Python, Java, C/C++중 사용 가능한 언어 선택)
- SW비전공 : 수리/추리논리력 진단
Computational Thinking 진단

※ 본 교육과정은 삼성이 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며,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함께합니다. (교육운영은 멀티캠퍼스에 위탁 실시)

www.SSAFY.com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로

성장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하루에 책 한페이지라도 읽기

매일 30분씩 걷기

올해에는 00자격증 따기 등등

더 나은 나를 위해 오늘도 노력중이신가요?

삶에 욕심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만 모았습니다.

드라마 <유니콘>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쿠팡플레이의 야심 찬 오리지널 시트콤 <유니콘>이 화제입니다.
은은하게 돌아있는(?) 스타트업 회사 '맥콤'의 크루들의 대혼돈 분투기를 담은
귀엽고 발랄한 드라마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히 배우 신하균이 변화무쌍한 스타트업 대표 역할로 하드 캐리 하며
주목받았죠. 드라마 <유니콘> 속 흥미로운 노동법을 알아볼까요?



“맥콤은 나의 모든 것” K-스타트업 ‘맥콤’ 창업자, 스티브의 수난기



스타트업 ‘맥콤’은 데모데이를 통해 야심작 ‘차브네’를 론칭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뿐입니다. 숨길 수 없는 실망감에 대표 스티브는 낙심하지만 결국 실버세대 매칭 서비스인 ‘어게인’으로 ‘피보팅(사업 아이템을 바꾸는 것)’을 결정합니다. 모든 직원은 스티브의 피보팅을 반대하지만, 스티브는 굳은 의지로 진행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트렌드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이템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맥콤. 맥콤은 과연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칭하는 ‘유니콘’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창업 관련 정보를 찾는 청년이세요?

코로나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창업 열기! 고용노동부는 웹사이트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청년센터는 창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개인별 맞춤 정보 및 취업 상담과 전국 청년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그야말로 청년들의 인생 매뉴얼을 모아 놓았습니다. 실시간 상담까지 가능하니, 취업이나 창업 등 궁금한 것이 있는 청년들은 이용해보세요!

“오늘부터 스티브 머니” 명절 선물, 한우가 아니라 가상화폐?



인사팀 모니카가 연수에서 돌아오자 맥콤의 전 직원에게 새로운 제도를 제안합니다. 바로 사내 가상 화폐인 ‘스티브 머니’인데요. 스티브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찍힌 화폐로 사내에서 커피를 사거나 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애슬리는 고장난 티비를 고치기 위해 명절 선물로 들어올 한우를 되팔아 현금을 챙기려 했지만, 모니카 때문에 스티브 머니로 명절 선물을 받게 되자 무척 당황합니다. 하지만 물질만능주의 월급쟁이 애슬리는 포기하지 않고 모니카가 독주하는 화폐 전쟁에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여기서 잠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아시나요?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명절 선물비용을 비롯해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이나 문화 활동 지원, 창립기념일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따른 자율사항이지만 단순히 일회성 있는 기금이 아닌 주택자금이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등 노동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제이, 맥콤에서 이루고 싶은 게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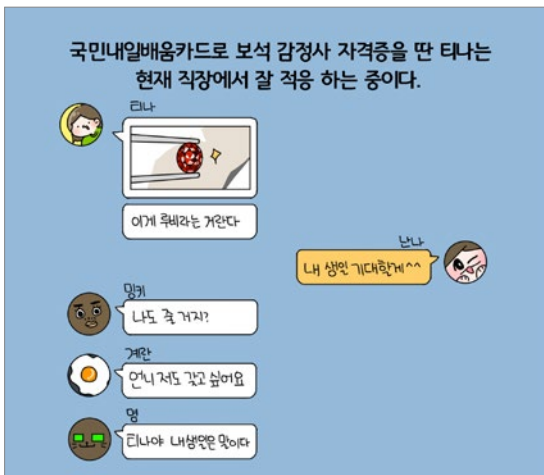
맥콤 미래혁신창의팀에 새로 합류한 제이는 스티브의 클럽하우스 공채라는 파격적인 루트로 입사하게 된 인물입니다. 스티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낯은 일을 도맡아 하는 맥콤의 몇 안 되는 정상인(!)처럼 보이죠. 험난한 스타트업의 세계에 들어와 ‘한탕’ 즉, 돈벼락을 노리는 동료 애슐리에게 애뜻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이는 머뭇거립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의문스러운 모습으로 궁금증을 자아내는 인물입니다. 제이는 정말 스파이일까요? 제이가 맥콤에 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잠깐!

고용노동부가 청년 취업을 돕습니다!

청년 채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많은데요.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년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최대 80만 원을 가장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지원 대상이니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문해력을 이해하는 용어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방송을 시작으로
관련 책도 쏟아져 나오는 등 최근 문해력이 화두입니다.
도대체 문해력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화제가 되는 걸까요?
문해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영상과 이미지에 익숙한 이들에게
필요한 문해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문해력의 개념

영어로 리터러시(Literacy)라고 부르는 문해력(文解力)의 사전적 의미는 글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에 요구되는 방식으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최근 ‘사흘’, ‘가제(歌題)’, ‘심심(甚深)한 사과’에 대한 해석이 SNS 상을 뜨겁게 달구면서 문해력이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문해력, 기능적 문해력, 정보 문해력, 미디어 문해력, 컴퓨터 문해력, 비판적 문해력 등 다양한 문해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해력이라는 큰 개념 안에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 의미를 담기 위해서라고 해석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대부분의 일들이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즉, 요즘은 데이터 없이는 불가능한 시대인데요. 그 때문에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능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란 데이터를 읽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데이터 해석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고 목적에 맞게 가치 있는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것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단 IT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文 解 力

디지털 리터러시



과거 글을 모르면 까막눈, 문맹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을 모르면 문맹 취급을받기 일쑤입니다. 이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든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시대적 변화로 인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4차 산업시대의 핵심 역량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나라들이 앞다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요.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의 정보 및 메시지를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정보를 발견하고 평가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동적인 개념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든 것과 같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문해력,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는 다양한 미디어를 읽고 이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디어 속 정보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쓰며, 말하는 등 정보의 시청각적 해석을 통해 미디어를 생산, 생산, 활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현대인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라 일컫는 청소년이 알고리즘으로 인해 주체적인 미디어 선택권을 잃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미디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하며, 창작자들은 가치있는 미디어를 창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운명 같은 사랑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가을바람처럼 살랑살랑 마음을 간지럽히는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올 가을엔
사랑을 꿈꾼다면!
가을맞이
문화 큐레이션



빛나는 인생을 노래하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는 한국영화로 첫 시도되는 뮤지컬 장르입니다. 여정(영정아)은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감지하고 남편 진봉(류승룡)에게 첫사랑을 찾아 달라고 합니다.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는 가을에 가슴을 간지럽히는 첫사랑을 찾으러 만나러 가는 그들에게 단서는 이름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첫사랑 찾기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힐링을 선물하는 나의 작은 숲
영화 <리틀포레스트>

이가라시 다이스케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리틀포레스트>는 고단한 도시의 삶에 지쳐 고향으로 내려온 혜원(김태리)이 소꿉친구인 재화(류준열)와 은숙(진기주)을 만나고 사계절의 자연 속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힐링 드라마인데요. 남과 달라요, 평범해도 다 괜찮은 청춘들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음악으로 하나되는
영화 <어거스트 러쉬>

<어거스트 러쉬>는 음악적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소년은 부모라면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알아볼 거라는 믿음으로 뉴욕으로 엄마, 아빠를 찾으러 나섭니다. 부모 잃은 천재 소년의 아름다운 여정을 담은 이야기 <어거스트 러쉬>는 영화의 모든 순간이 명장면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국내 220만 명 관객의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어거스트 러쉬>가 만드는 음악의 기적, 감동적인 연주를 감상해보세요.



당신 눈동자에 건배
영화 <카사블랑카>

사랑했던 여인이 이유 없이 떠난 후, 세상에 환멸을 느낌 남자, 릭이 다시 사랑의 힘으로 얼어붙은 감정을 깨우는 과정을 그린 영화 <카사블랑카>입니다. 미국인 릭은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방관했지만, 과거의 연인 일리자가 찾아오면서 잃어버린 감정을 다시 되찾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랑이었네요.



짧은 사랑, 긴 그리움
영화 <만추>

영화 <만추>는 사랑이 두려운 여자 애나(탕웨이)가 만난지 하루만에 훈(현빈)에게 빠져버린 사랑이 이야기입니다. 7년째 수감 중인 애나는 어머니의 부고로 3일 간의 휴가를 나왔다가 훈을 만납니다. 그렇게 시작된 장난 같은 시애틀의 하루가 보내게 됩니다. 이 하루만에 사랑에 빠져버린 애나는 2년 뒤 교도소를 출소할 때까지 그를 잊지 못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데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긴 기다림 속에 진한 그리움을 간직한 <만추>는 가을에 딱 맞는 영화입니다.



잊지 못할 첫사랑
영화 <건축학개론>

풋풋하고 어설픈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 수지를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준 영화 <건축학개론>인데요. 이 영화는 따뜻한 포근한 배경의 대학 캠퍼스에서 펼쳐지는 청춘남녀의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15년 만에 불쑥 나타나 자신의 집을 설계해달라는 서연(한가인)과 당황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건 첫 작품으로 서연의 집을 짓게 된 승민(임태웅). 첫사랑의 풋풋하고 싱그러운 그 감정이 그림다면 <건축학개론>을 추천합니다.



시인이 건네는 따뜻한 인사 도서 <계절산문>

박준 시인의 두 번째 산문집 <계절산문>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사는 동안 계절의 길목에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 장면을, 눈여겨 보았다가 단정하고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박준 시인이 쓸쓸한 계절을 보내면서 누군가에게 꺼내 보내는 편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풀어나가는 이야기는 책을 읽는 독자의 이야기와도 맞물리기도 합니다. 시인의 언어로 지나온 시간과 다가올 시간에게 보내는 계절 인사를 만나보세요.



뜨거운 위로의 포옹을 도서 <은혜씨의 포옹>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한지민 씨의 다운증후군 언니 '영희' 역을 맡은 실제 발달장애인 배우이자 화가인 정은혜 작가가 그림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그림책에는 유난히 포옹하는 장면이 많은데 키가 작은 그녀가 상대방의 가슴에 찰싹 달라붙어 안겨 있는 모습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세상에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지만 포옹 그 자체는 따뜻해 보여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정은혜 작가는 세상에는 더 ভাল 사람도, 더 예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녀의 그림 속 사람들 얼굴은 모두 사랑스럽네요.



음식이 채워주는 마음의 온기 도서 <허기의 쓸모>

<허기의 쓸모>는 음식으로 위로받은 적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에세이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삶의 헛헛함을 채우기에는 음식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정성을 꼭꼭 눌러 담은 한 그릇 음식, 투박하지만 사랑 담긴 집밥 등 음식이 채워주는 진심어린 응원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권합니다. 푸근한 밥상 같은 글로 마음의 온기를 채워시길.



깜깜한 밤을 밝히는 사랑 도서 <간긴밤>

<간긴밤>은 제21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세상에 마지막 남은 한 마리 흰바위코뿔소와 코뿔소 품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이 수없이 많은 간긴밤을 함께 하며,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문학이라고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연결된 이야기 구성이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데요, 길고 깜깜한 긴 밤을 밝히는 것은 결국 사랑임을 깨닫게 합니다.



베를린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앙상블
<필하모니 스트링 콰텟 베를린> 내한공연

필하모닉 스트링 콰텟 베를린은 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르며 실내악 앙상블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현악오중주단입니다. 이들은 오는 10월 7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에선 베토벤, 차이콥스키, 파가니니 등 작곡가 7인의 작품을 연주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청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해보세요.

일시: 10월 7일 /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로맨스다운 로맨스
뮤지컬 <사랑의 불시착>

온국민 '리정혁+윤세리앳이'를 만들었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뮤지컬로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북한 총정치국장의 아들이자 간간한 군인장교 리정혁과 재벌가의 막내딸로 타고난 사업수완을 가진 윤세리가 엉뚱한 상황에서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데요. 원작 드라마의 명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뮤지컬로 새롭게 표현된 로맨스다운 로맨스를 만나보세요.

일시: 9월 15일~11월 13일 / 장소: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뮤지컬 <백만송이의 사랑>

뮤지컬 <백만송이의 사랑>은 콘서트와 결합된 주크박스 형태의 창작뮤지컬로, 지난 100년간의 현대사를 7개의 에피소드로 속도감있게 전하며, 그 시절 히트곡에 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애절한 사랑이야기와 대중가요의 콜라보로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전 세대 공감형 뮤지컬입니다. 우리에게 삶과 사랑이 역사와 음악처럼 흘러가지만 계속된다는 묵직한 감동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일시: 10월 4일~10월 23일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50여 년간 이어진 두 남녀의 러브레터
연극 <러브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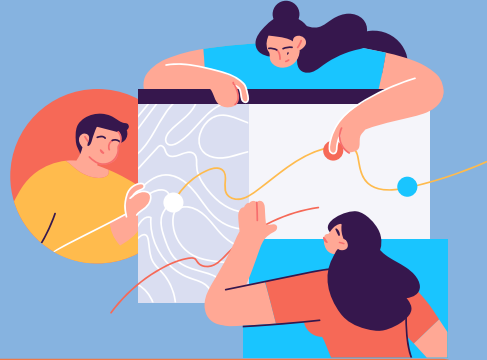
연극 <러브레터>는 주인공 '멜리사'와 '앤디'는 서로를 평생 그리워하며 47년동안, 333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편지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담백하고 유쾌하면서도 가슴을 저리게 만드는데요. 주인공 '앤디' 역에 오징어게임을 '깁부' 오영수 님이 캐스팅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50여 년간 이어진 두 남녀의 편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일시: 10월 6일~11월 13일 /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같은 한글도 다르다!” 파워포인트에 힘 싣는 무료 폰트들

학생, 직장인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파워포인트 작업을 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파워포인트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폰트인데요. 다양한 폰트를 사용해 완성도 높은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되는 유용한 폰트를 찾아보았습니다.

※ 각 해당 폰트로 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양시 전용 서체



고양 특례시의 전용 서체인 고양체, 고양덕양체, 고양일산체도 귀여운 폰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 마스코트 고양이를 기호나 심볼, 아이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반듯하게 꼭꼭 눌러쓴 듯한, 권위적이지 않고 친근한 고양시의 이미지를 감성적으로 풀어놓은 고양체, 둥그렇게 따뜻한 느낌을 강조한 고양덕양체, 얇은 굵기로 산뜻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고양일산체가 있는데요. 고양특례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서체 중 고양체를 사용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배포하는 폰트들은 폰트계의 ‘혁명’을 일으키며 레트로 열풍을 몰고왔습니다. 한나, 주아, 도현, 연성, 기람 해람, 한나 에어, 한나 프로, 을지로, 을지로 10년후, 을지로오래오래체 등 2013년부터 꾸준히 만든 폰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텍스트로 세월의 흔적을 표현하기도, 힘차거나 강인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배민 한나체 에어는 본문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작게 쓸수록 우아하고 잘 읽히니 용도에 맞게 적용해보세요.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 배달의 민족체 중 배민 한나체 에어를 사용했습니다.





마루 부리 글꼴



지난 2020년 한글날을 맞아 네이버에서 공개한 새로운 글꼴입니다. 네이버는 마루 부리 글꼴을 두고 민고딕(고딕) 위주의 환경에서 글꼴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한글꼴의 디지털 기틀을 만들기 위해 제작한 미래 세대를 위한 글꼴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루 부리 글꼴은 디지털 화면에 최적화된 화면용 본문 글꼴로 2018년부터 6만여 명의 사용자와 함께 제작했습니다. 네이버 한글한글아름답게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박용준투사회보체



지난해, 41년 만에 박용준 열사의 글씨가 디지털로 복원되어 무료 배포됐습니다. 오월 광주의 참상을 알리고자 박용준 열사가 직접 쓰고 발간된 투사회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복원폰트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금을 통해 글꼴이 제작된 만큼 더욱 의미가 깊은 폰트인데요. 박용준 열사는 투사회보 수천장을 찍어내기 위해 같은 내용을 23~30번 이상 철필로 짚아냈습니다. 그만큼 단호한 결말 혹은 결심의 느낌을 살리는 데 좋습니다.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사만루체



유튜버들의 '썸네일 글꼴'로 유명한 이사만루체는 공개임즈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로 상업적 용도를 포함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광고나 카드 뉴스로 쓰기 깔끔합니다. 심플함 속에서 감각적인 텍스트를 강조하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폰트를 흰색으로, 바탕을 원색으로 해도 깔끔해 보입니다. 제목에는 볼드를, 본문에는 라이트나 미디움을 사용하는 것이 어울려요. 공개임즈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보세요.

스포카 한 산스 네오



지난 2015년 한글날 스타트업 '스포카'에서 처음 공개 이후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거친 완성도 높은 폰트입니다. 스포카 한 산스는 다국어 UI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의 노토 산스와 라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커스텀 글꼴로 국문은 물론 숫자, 영문, 일문, 한자 등 다양한 언어 활용이 가능해 웹디자이너의 최애 폰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용량을 441KB까지 줄인 경량 폰트로 웹에 사용하기에 부담 없습니다. 스포카 한 산스 네오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채널 moel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이번 10월호에서 고대한뉴스의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토크쇼,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근로자분들 휴게시설에서 편하게 쉬세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보다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설치는 당연히! 휴게실의 위치,
면적, 온도, 습도 등 관리기준까지 제대로 마련되었다는데요.
지금 고대한 뉴스4에서 휴게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유튜브

아직 고용노동부 유튜브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https://www.youtube.com/user/moelkorea>

👍 좋아요와 👉 구독신청, 🔔 알람신청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썸터뷰에 진짜가 나타났다!

썸터뷰에서 고용노동정책의 주요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누구와 함께? 궁금하면 클릭!



미취업 청년들의 희망메이트!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이수시 20만 원도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물도 아끼고 탄소발생량도 줄이고 양치컵 사용하기 챌린지



양치할 때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할까요?

양치할 때 무심코 틀어놓고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3분 양치하는 동안 평균 약 3컵(0.6L)이면 깨끗하게 양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을 틀어놓으면 30초에 약 6L의 물이 흐른다고 하니

양치컵을 사용하면 1인당 4.8L의 물을 절약이 가능하답니다.

하루 3번의 양치를 하면서 14.4L의 물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연간 1.7kg의 CO₂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양치컵 사용 안 할 이유 없죠?

10월 챌린지 캘린더

CHECK! 챌린지를 실제로 실천한 날을 캘린더에 표시해 보세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국군의 날 군인들도 양치컵 쓰지 말입니다
2 	3 개천절	4	5	6	7	8 한로
9 한글날	10 대체 휴일 휴일에도 잊지않기!!	11	12	13	14	15 호스피스の日/ 문화의 날 
16	17 	18	19	20	21	22
23 상강	24	25 독도의 날 	26	27	28	29
30	31					



10월 챌린지 캘린더,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매월 한 가지씩 우리의 내일을 위한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10월 챌린지 캘린더를 사진으로 찍어 #월간내일 #그린리추얼 #10월챌린지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음료 상품권을 드립니다. 혼자라면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라면 훨씬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내일스타그램

이번달
늘봄이 이야기

중장년
일자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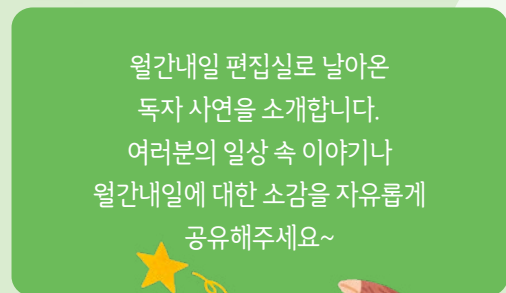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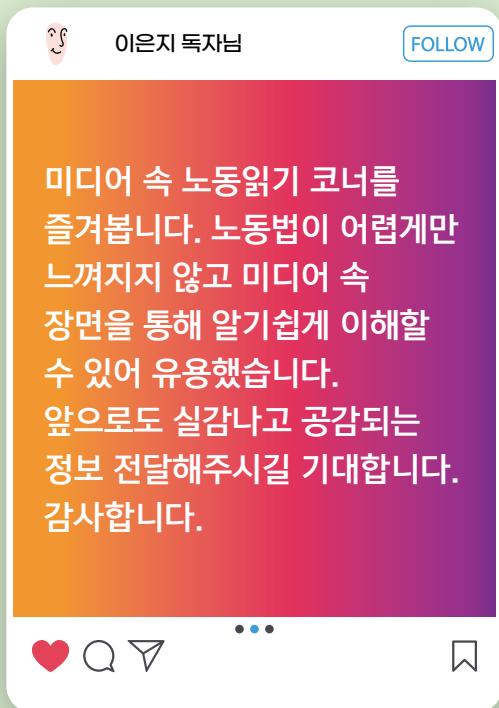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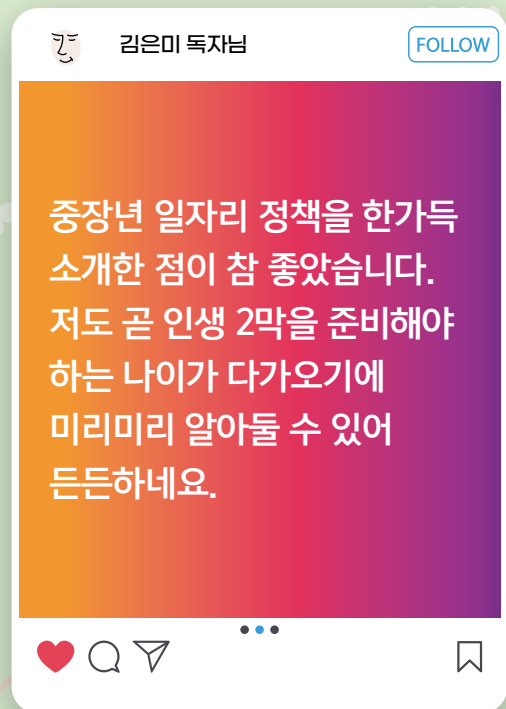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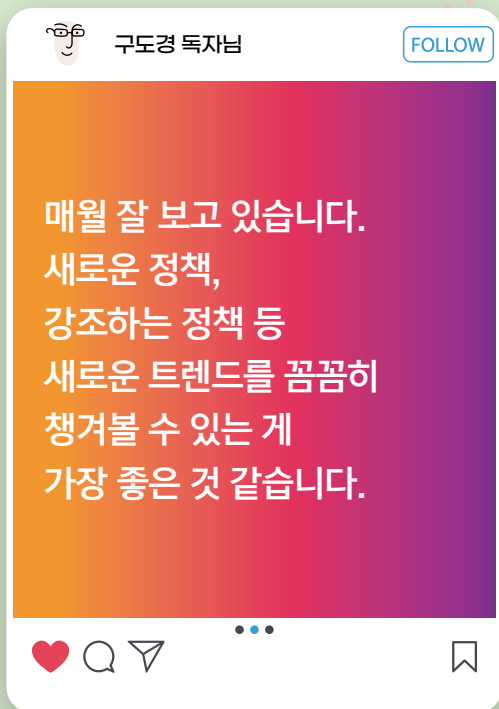
고용뉴스

주말에 뭐할래

REVIEW



10월호 그린리추얼
양치컵 사용하기 챌린지 성공 인증샷과 소감을
#내일스타그램으로 보내주세요.



월간내일 편집실로 날아온
독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이야기나
월간내일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고용노동부 <월간내일> 이벤트

초성이벤트

<월간내일> 10월호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정책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초성을 맞춰주세요.

※ 이름, 전화번호와 함께 남겨주셔야 당첨 시 기프티콘을 받으실 수 있어요.

??



힌트보러가기
P.25



✓ 이벤트 참여방법

1. 트렌드캐치업 콘텐츠를 열심히 읽는다.
2. 웹진(www.labor21.kr)에 접속한 뒤 이달의 주제 맞추기를
눌러 정답을 남긴다.

?

<월간내일>을 읽은 소감, 기대평 등도 남겨주면 당첨 확률이 Up! Up!
추첨을 통해 20명께 맛있는 디저트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기간: 10월 5일(수) ~ 10월 19일(수) / **당첨자발표:** 11월 1일(화) 개별발표
당첨자: 20명 / **이벤트 상품:** 디저트 쿠폰

9월 이벤트 당첨자(*당첨자는 가나다 순)

김대봉(8503) 김동석(6335) 김승권(2629) 김진아(4284) 박순영(7537) 박정숙(1634) 박춘식(3220)
박혜진(0819) 서경훈(8374) 심지훈(3465) 어지민(4087), 이의령(0677), 이동택(9317) 이준길(6499)
이정인(1703) 임정수(2113) 채유진(1904) 최근영(7352) 최진(8709) 함원(0901)

<월간 내일>을 만나는 방법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www.labor21.kr

❶ 인쇄 잡지로 만나기

웹진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❷ 웹진으로 만나기

인터넷 검색창에 '월간 내일' 혹은 'www.labor21.kr'을 입력하세요.

❸ 카톡 플친으로 만나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월간 내일'을 검색 후 친구 추가를 해주세요.

